논어 5편 공야장 4장 · 원문·풀이

子貢問曰：「賜也何如？」子曰：「女器也」。曰：「何器也？」曰：「瑚璉也。」

독음 · 자공문왈 사야하여 자왈 여기야 왈 하기야 왈 호련야

쉬운 풀이(요약) · 공자는 자공을 제사에 쓰는 귀한 그릇에 비유했다.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특정한 쓰임의 단계임을 뜻한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貢 바칠 공 공 / 問 물을 문 문 / 曰 가로 왈

賜 줄 사 사 / 也 어조사 야 / 何 어찌 하 하 / 如 같을 여 여

女 계집 녀 여 / 器 그릇 기 기 / 瑚 산호 호 호 / 璉 호련 련 련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